

배 포 일	2024. 07. 24.	매 수	총 3매 (사진 2매 별도)
담당부서	일자리사업본부 / 사업개발부	담당자	본부장 서광국(02-3415-6905)
			선임 이재웅(02-3415-6937)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혹서기 거리노숙인 피해예방을 위한 행복상자 전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정해식, 이하 개발원)은 7월 24일(수) 혹서기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리노숙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 이하 하나은행)과 함께 혹서기 극복을 위한 물품이 담긴 행복상자 기부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행복상자 전달식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노숙인시설 ‘햇살보금자리’에서 진행되었으며, 개발원 정해식 원장, 하나은행 이은배 부행장 등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행복상자’는 △냉감이불 △선풍기 △수건 △물티슈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 형태의 300개 후원물품으로 햇살보금자리 외 전국 5개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노숙인시설(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디딤센터,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수요에 따라 전달되었다.

그동안 개발원은 하나은행과 함께 저소득층의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및 ESG실현을 위해 협약을 맺어 노력해왔으며,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해왔다.

개발원 정해식 원장은 “이번에 전달된 행복상자가 취약계층들이 무더위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자활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붙임> 관련사진 2매



사진: (왼쪽부터)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해식 원장, 햇살보금자리 김기용 시설장, 하나은행 이은배 부행장.
출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사진: '24.07.24. 한국자활복지개발원-하나은행 후원물품 전달식 단체사진. 출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